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6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 일시 : 2016년 5월 9일(월) 오전 11:30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추 모 사

오늘은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26주년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 71주년이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지 7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와 같이 올해에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선생님의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과 민족자강, 그리고 민주건국의 숭고한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면에서 계속 흑자(黑字)를 가져왔고, 지난해부터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세워 당면한 경제난국의 극복과 창조경제의 실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122석을 얻음으로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독립과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고하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진운에 따라 민족중흥과 평화통일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 굳게 뭉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굳은 신념,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의 평생의 친구요 동지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시면서 지조와 경륜, 애국심을 겸비한 선생님의 독야청청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몇 가지를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도 없고 일제(日帝)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절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선생님께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님과 그렇게도 정열을 쏟으셨던 동아일보가 김재호(金載昊) 사장을 중심으로 2011. 12월에 개국한 “채널A”와 더불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창간 96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일보는 선생님께서 제창하신 민족, 민주, 문화의 3대 사시(社是)에 충실하여 앞으로 분단체제를 넘어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선생님 생가와 새로 건립한 “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教育館)”은 건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었고 그간 진입로 확장정비 등 주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인보 선생님이 지으시고 비문을 써주신 고하선생님의 추모비를 근대역사문화교육관 경내에 이설하고 생가복원사업을 일단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선생님 탄신 125주년, 광복 70주년, 서거 7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선생님의 일대기를 엮은 만화책 “항일독립과 민주건국의 등불 고하 송진우”를 발간하였고, 10월 20일에는 “고하 송진우 선생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에 관한 이념과 사상”을 주제로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는 바 전문가, 학자들로부터 선생님의 애국충정에 대하여 뜻깊은 발표가 많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세계적으로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증책을 맡아 12년간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信賴)와 국격(國格)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송박사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 봉사해왔던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유엔아동기금) 회장으로서는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 추모사를 해주실 윤종오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님께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추모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하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